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 일밤 '헌터스'와 불살생

12월 6일 첫 방송을 마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코너 '대한민국 생태구조단, 헌터스'(이하 헌터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먹잇감이 부족해진 겨울철, 멧돼지들이 민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고 심지어 농촌 어르신들을 공격하는 일까지 빈번해지자 멧돼지를 포획하는 버라이어티가 등장한 것이다.

'헌터스'는 일간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지던 멧돼지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농민들의 감정을 여실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멧돼지 피해 현황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버라이어티의 특성 상 멧돼지의 포획과 일련의 과정이 결국 살생을 오락화 회화화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헌터스'에서 포획 후 119에 넘겨진 멧돼지는 방사될 수 없어 결국 죽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연대와 사단법인 보리 등 불교계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멧돼지와 인간이 공존 상생하는 컨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프로그램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멧돼지 또한 생명이며, 농촌의 어르신들에게 농작물 또한 생명이란 점에서 불교계는 이

러한 '버라이어티'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구체적인 불교적 대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장에서는 인간의 개발로 멧돼지의 개체를 조절하는 맹수류가 사라진 점, 산림자원 목적으로 유실수 등이 사라지며 산림의 먹잇감이 줄어든 점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절충점으로 TNR사업이 꼽히고 있다.

실례로 서울시는 유기동물 중 길고양이의 개체를 관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lease)를 통해 계획적으로 고양이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TNR사업의 동물 불임수술에 대해 불교계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사회는 격변하며 그 답을 어디에선가 구하고 있다. 헌터스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청자들에게 반문한 나레이션이 불교계를 향해 던진 화두로 들리고 있다.

<법망경>은 "만약 세상에 사람이 축생(畜生)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方便)을 써서 구호해 그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방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원봉 스님 중앙종회의장 선출

### 태고종 101차 총회... 2010년도 예산 54억 통과

태고종 중앙종회의장에 원봉 스님이, 중앙사정원장에 윤곡 스님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총회는 12월 9일 제 101차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종회의장과 사정원장 선출, 2010년 세입세출안과 총무원 부원장 등 중앙총무 기관 간부 선출 서면결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제직인원 48명중 40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단독 추천 받은 종회의장 원봉 스님(종회의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중앙사정원장에는 윤곡 스님(전 총회의장)이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돼 영우 스님(26표), 상허 스님(21표)이 선출됐다. 다득표한 영우 스님은 수석 부의장으로 임명됐으며, 중앙사정원 부원장에는 일운 스님(불원사 주지)이 선출됐다.

중앙종회의장에 선출된 원봉 스님은 이날 "지난 총무원장 선거는 전 종도의 단합을 한 차원 더 높이는 희망의 자리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3월 구성을 마무리하는 이날 총회는 더욱 뜻깊다"며 "종단 이해 걸려있는 사안에 지혜를 모아 한국불교전통종단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총회는 2010년도 총무원 예산으로 약 54억 7080만원, 동방불교대학 예산 44억 2730만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총무원 부원장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간부 선출에 대한 서면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추진했다.

또한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제정안'도 통과돼 종단 기구조직 개편 및 재산관리 제도 등 종단 전반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봉 스님.

정안'도 통과돼 종단 기구조직 개편 및 재산관리 제도 등 종단 전반의 제도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는 종단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한 종단사 전산화DB와 홈페이지 연구서적을 총회에 앞서 봉정했다.

노덕현 기자

## 내부 조력자 조사·청산 등 과제 '산적'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2기의 과제는?

1980년 10월 27일 새벽 2시, 조계종 총무원 이하 전국의 주요사찰 5731곳에 신군부의 계엄군이 난입해 당시 총무원장인 월주 스님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수년 동안 언론을 통해 불교를 비위잡단으로 매도한 10·27법난.

근대 한국불교사상 최대 수난이 발생한지 30년 후인 2009년 12월 9일,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기 체제를 맞았다.

17기 심의위는 법제정 이후 1여년에 불과한 짧은 활동기간에도 지원단 조직 확립, 피해신청 접수 및 조치(41명 접수/30명 조치), 피해사실 조사 등 적지않은 성과를 낳았다. 또 매주 원로 스님 등을 방문해 피해신청 의사를 독려하고 역사교육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백서제작전담반을 구성해 기록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정부에 의한 종교편향의 청산은 또 다른 과제를 낳고 있다.

◆내부조력자 조사 및 청산= 10·27법난 당시 불교탄압의 밑거름

제공한 세력 가운데는 신군부 정권뿐만 아니라 불교계 내부 인사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 조력자를 밝히는 것은 차후 불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선 심의위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조력자 처우에 대한 사법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박종신 지원단장 등 일선 관계자들은 "피해 사실 조사로 원로 스님 방문시 종단 내 예전 일을 들추기 꺼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듯 관계자 증언 및 기록 확보에 동참을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도 시급한 문제다.

◆역사교육관 사업 조사 확정= 국회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올해 10·27법난 관련예산은 약 36억원, 이중 역사교육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예산은 5억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사로 내정됐던 종단의 방침이 심의위와 새 집행부의 전면 재수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후보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관련 법안 재정비= 역사교육관

건립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당단 법안 설립과 법적 근거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2010년 6월까지로 위원회 활동 종료 예정인 10·27법난 특별법은 3년 기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중이다. 관계자들은 각 당이 합의한 점을 들어 통과를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등이 명시된데 비해 사망자에 대한 보상과 소속 종단에 대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미비점이다. 특히 차후 기념사업을 위한 법안 설립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안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법난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조명되고 피해 배상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 발생 28년이 지난 후인 2008년 3월부터였다. 10·27법난에 대한 명예회복 불사는 30년의 세월을 넘어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범종단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때다.

노덕현 기자

## "승가교육 근간 세우기 주력"

### 조계종 교육원 제8기 교육위원회 구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우)이 승가 교육 발전의 싹크탱크 역할을 할 제 8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기 교육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일 제8기 교육위원회 위촉 및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제8기 교육위원회는 종로 스님(동국대 교수),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안 스님(미래연구소 소장), 정호 스님(무설연구소 소장), 원소 스님(불학연구소 연구위원), 명범 스님(문운승가대 교수), 주경 스님(산부서사 주지), 금강 스님(해남 미항사 주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위원회는 '선(禪)의 현대화', '불교의 세계화' 등 현대적 승가상에 남다르게 고민하는 다양한 경험·관심·사고의 소유자들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특히, 홍사성 편집인은 재가자로서는 처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법인 스님은 "교육원의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란 새 모토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며 "교육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근간을 바로 하는데 주력하겠다. 한국속 불교의 틀을 깨고 넘는데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종섭 기자

## 포교연구실장 정호 스님 등 인사

### 조계종 포교원, 8일 신규 종무원 임명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홍)은 12월 8일 포교원실에서 포교원 신규 교역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혜홍 스님은 임명장 전달에 앞서 "33대 총무원 집행에 포교원도 적극 동참해 포교원, 총무원, 교육원이 힘을 합쳐 대작불사를 이룰 것"이라 "포교원 복무에 최선을 다해 종단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 스님, 신도국장 정무스님을 비롯한 종무원들은 모두 재임했다.

이상은 기자

## 서호노인복지관 등서 소외계층 격려

### 자승 스님,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도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찾아 직접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12월 10일 수원 서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독거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나눠드리는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오른손을 다친 와중에도 자승 스님은 직접 밥과 국, 반찬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며 건강을 기원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원 성빈센트 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직지(直指) 대모 박병선 박사를 위로했다.



10일 수원 성빈센트병원에서 박병선 박사를 위로하는 자승 스님.

자승 스님은 "박 박사님의 종교가 불교는 아니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고 큰 일을 하셨다"며 "하루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완쾌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박 박사에 패용을 기원하는 금일봉과 함께 2005년 조계종이 발간한 <직지> 영어본과 한글본을 선물했다. 박 박사는 "지장보살의 가피로 원장 스님이 주신 것 같다"며 쾌차 후 조건의제 2집에 대한 집필 의사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 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정(恒)의 '현대불교'를 이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달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법보시 후원 안내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월 구좌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철자. 만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양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엮시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을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